



제주도정, 안정적 국비확보 선제 대응

2024년 2조원 목표... 사업 발굴 등 준비작업 착수 국제컨벤션센터 같은 대규모 인프라 수년째 전무

제주자치도가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국비 사업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과 경제활력을 위해 2024년 국비 확보 목표를 2조 원(전년대비 8.5% ↑·1568억원 ↑)으로 설정하고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보고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는 2024년 부서별 신규 국비사업을 공유하고 더 나은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부서는 2024년 총 2482억 원

규모의 134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실국별로 핵심사업을 보고했다. 이번에 발굴한 2024년 주요사업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전력·난방 등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그린수소 거점 지역 조성 98억 원 ▷제주-내륙 연안화물 지원사업 468억 원 ▷제주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스마트팜 창업 지원 70억 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4억 원 등이다. 하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같은 대규모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은 나오지 않아 추가 발굴 사업에는 대형 시설 인

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직자는 “신규법 전 도지사 이후에 대형 인프라 시설 건립은 전무한 상태”라며 “이제는 지방비만 들어가는 소규모 마을회관이나 체육문화시설 건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한 사업은 수정·보완 등을 거쳐 각 실국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중앙부처 설득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4년도 신규 국비 사업은 새로운 혁신, 미래라는 키워드를 담아내기 바란다”며 “기존에 완료된 시범사업의 경우 국정과제에 맞춰 실증을 확대하는 등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주말 통과된 국회 예산안과 관련해 당초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 현안사업 추진 논리 개발 등 부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국비 예산 편성 일정은 이달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 부처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전달하고, 2023년 1월 까지 각 부처에서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4월 30일 각 부처로 예산 신청, 5월 31일까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신청하며 최종 정부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문인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위기대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몇 개월 후면 제주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지난 6월 일본 전곡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사를 3차례나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강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바닷물로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방류하니 문제가 없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배출된 양만으로도 후쿠시마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기준치의 몇 배씩 검출되었다. 일본 현지 어민은 “생선이 안 팔릴 테니까? 사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이런 말



박 호 형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적제위원회
의원

때문에 방류를 강행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한다. 원자핵공학자인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는 후쿠시마에 인공호수를 만들면 현재 오염수 130만톤의 몇 배까지 담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해도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즉 오염수는 다핵종저거설비(ALPS)로 방사성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면서 이 설비를 못 거르는 삼중수소는 바다에 방류해도 무해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방사선 물질이 대거 검출된 후쿠시마산 생선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는 턱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해양환경보호 관련 규정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어업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우리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한·일 해협 연안 5개 시도협체인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전남과 연대하여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만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고농도 검출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아직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수산물 유통체계 강화와 함께 어업조업 금지 등 빈틈없는 대응매뉴얼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日정부 오염수 방류 강행 “정부-지자체간 공동 대응 유기적 협력 절실한 시점”

과 함께 후쿠시마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어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1인당 수산물 연간 섭취량이 69.9kg으로 육류 섭취량(68.1kg)보다 많다. 이는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평균 소비의 3배를 넘을 정도로 한국인은 ‘해식가’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봄에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몇 달 뒤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근해로 밀려와 우리 밥상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놀랍게도 미온적이다. 올해 국정감사 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답변은 ‘묵묵부답’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비용 절

고향사랑기부자에 농·수·축산물 답례도, 답례품 13개 품목·15개 공급업체 선정·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관련해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갈굴 굴포장생, 갈치, 돼지고기 등 13개 품목 15개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50개 업체의 제안발표와 자격(구성) 및 가격 적정성, 사업체의 운영역량, 생산·유통 안정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해 15개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선정 품목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생드영농조합법인) ▷갈굴 굴포장생(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갈치(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돼지고기(영농조합법인 탐라인, 제주양돈축협 수출육 가공공장) ▷축산물가공품(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침미소 ▷고사리(서귀포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과줄(하효살협동조합) ▷오메

기떡(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큰행복) ▷차류(제주시농업협동조합) ▷곡류(메밀밭에 가시리) ▷제주화장품(대한비티산업진흥원) ▷생활용품(농업회사법인(주)제주클린산업 ▷관광·체험서비스 상품(제주올레여행자센터 ㈜간세, 주식회사 청원)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1차회의는 탐나는전을 답례품으로 결정한 바 있다. 15개 공급업체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주도는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이(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답례품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종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적으로 답례품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메가 FTA 따른 제주농업 대응 방안 모색도, 어제 전략협의회... 현황·대응 방향 등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농업인회관 회의실에서 ‘메가FTA 개방화 대응 제주농업 전략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메가FTA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처럼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이다. 이날 회의는 메가FTA 등 개방화에 따른 제주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연구용역 결

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화년 제주대교수는 ‘메가FTA 등 개방화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 방향’ 특별강연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운영상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가입품목 추가 지정 및 가입기간 개선, 품목별 가입률·보장률 계량화 분석,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의 방향 설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고대리기자

2023년도 제주환경대학 수강생 모집 (환경보전지도자과정 27기)

청정 제주환경을 위하여 도전해봅시다!!!

제주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한 바다. 다양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UNESCO 3관왕을 달성한 생명의 섬입니다. 그러나, 근래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등 점점 새롭고도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주변환경 변화의 풍파에 자유로울 수 믿은 없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우리 다음세대에 전해줘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2023년!!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며 제주의 미래세대에 청정제주를 물려줄 제주환경 지킴이 역할을 제주환경대학에서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모집인원 : 선착순 60명 내외 (자세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23년 1월중 (선착순 접수마감)
- 교육기간 : 1년과정 (2023년 3월~2024년 2월)
이론 : 목요일15시~17시, 현장교육 : 목요일14시~17시
- 교육장소 :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이론) 및 도내외 환경 현장탐방
- 교육내용 : 제주의 자연환경, 문화와 역사, 인문환경, 동물, 식물, 지질, 담사, 동물, 양서파충류, 꽃차, 오물, 습지, 폐기물, 하수처리, 기후변화, 수산자원, 축산환경, 탄소중립, 에너지, 길 생태 등 이론 강의 및 현장 탐방교육.
- 년회비 및 원우회비 : 각 10만원씩 20만원 (입금계좌 농협 961-01-0710176, 예금주 : 제주환경연구원)
- 강 사 : 국내외 전문가, 학자, 현장전문해설가
- 서류비치 : 수강신청서 (제주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또는 사무실 내방)
- 서류제출 및 등록 : 전화등록 후 수강신청 (증명사진 2매)
- 특 전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 도내외 견학시 여행경비 일부 지원
- 원서제출처 : 환경대학 사무처 또는 E-mail (cjerc@hanmail.net) 로 접수

* 주소 : 제주도 과원동 4길 89 (연동 주흥빌딩 2층)
* 홈페이지 : (사)제주환경연구원, www.jjerc.or.kr
* 전화 : 064-712-0135, 사무처장 H/P : 010-8424-3580

사단법인 제주환경연구원 이사장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 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특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 네 건 축 베 네 하우스

문의 : ☎ 064-723-1105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 물가안정 사은행사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프리미엄형중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1 HBA
최고품질 인증 수상

중전형 귀속형 보청기 중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리체육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